"멈추면 실패지만 나아가면 '과정'입니다"

지난 5일 오현고등학교서 한라일보·JDC '교육특강'
이낙준, 33번째 멘토 참여
"실패 두려워 않는 도전을"


지난 5일 오현고등학교 청음홀에서 이낙준 작가가 멘토로 나선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톡톡 튀는 교육특강'이 열리고 있다. 김지은기자

"제가 처음 쓰는 글은 무조건 망하는 거였어요. 망하는 게 담보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망하고 나서 멈추면 '실패'이지만, 거기에서 뭔가 배워서 그다음으로 나가면 '과정'입니다."

지난 5일 오현고등학교 청음홀에서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최한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톡톡 튀는 교육특강'. 서른세 번째 멘토로 나선 이낙준 작가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도전'을 가리켰다.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찾아온 그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어쩌다 보니 직업이 세 개'라는 강연 제목처럼 그의 이력은 독특하고 화려하다. 본업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지만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된 웹소설 '중증외상센터'의 작가이자 구독자 14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다.

얼핏 봐도 실패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었다. 공부가 싫었던 중학교 시절 무턱대고 도전한 권투는 신체적 한계를 깨닫게 했고, 돈을 벌겠다며 호기 있게 나선 군고구마 장사로는 방학 두 달 동안 겨우 2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남겼다. 공부는 고등학생이 돼서야 뒤늦게 시작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까지 애를 먹었다.

마침내 의대에 진학해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그가 '의학 웹툰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꺼내 보였을 때, 주위 반응은 냉담했다. "정말 단 한 명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가 떠올렸다. 많은 이들에겐 '정답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오답 인생을 살아 볼게'라는 선언"과 같았을 거라고 그가 덧붙였다. 실패가 걱정되긴 그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2년이란 타임라인을 정하고 웹툰 대신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 말대로 하면 새로운 일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였다.

대표작인 '중증외상센터'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작품은 그야말로 망했지만 또 다른 작품을 계속 이으며 작법론을 완전히 바꿔 나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내놓은 중증외상센터는 1100회 넘게 연재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고 부모가 해 보지 않았던 게 계속 나올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선점만 한다면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 도전을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 하나만 버리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의 경험이 담긴 응원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됐다. 특강에 참여한 오현고 2학년 김유준 학생은 "좋아하는 작가를 실제로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 감명 깊었다. 다시 한번 웹소설 쓰기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했고, 1학년 김준서 학생은 "인생의 기준이 생긴 것 같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공동기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한라일보>

한라산 단풍 절정… 작년보다 닷새 빨라

한라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며 산자락이 울긋불긋 물들었다.

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됐다. 지난해(11월 11일)보다 5일 빠르고, 평년(10월 28일)보다는 9일 늦었다. 올해 한라산 단풍은 10월 14일부터 관측됐다.

한라산 단풍 관측 지점은 어리목 일대이다.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80% 가량 물 들었을 때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본다.

전국 21개 유명산의 단풍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누리집 '유명산 단풍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우리 가까이서 찾는 환경의 가치
제주교육청 공공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잇달아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이 우리 주변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잇달아 운영한다. 제주도서관은 도내 오름과 곶자왈을 직접 탐방하는 '사계절 섬살이'를, 한수풀도서관은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는 '지구를 지키는 초록 교실'을 준비했다.

제주도서관은 오는 29일 당일 탐방으로 '11월 사계절 섬살이'를 운영한다. 코스는 함덕 서우봉의 역사와 설화를 살피고 선흘 동백동산 곶자왈을 걸으며 생태환경을 관찰하는 것으로 짜였다. 최경진 오름사진작가가 동행한다. 참가 대상은 성인과 청소년이며, 모두 30명을 모집한다.

한수풀도서관의 '지구를 지키는 초록 교실'은 그림책과 새활용 친환경 원예활동을 연계했다. '플라스틱 섬', '나무 하나에' 등 그림책을 통해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친환경 체험활동으로 자원의 새로운 쓰임을 발견하도록 했다. 운영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일요일(총 4회)이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두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 김지은기자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정비
제주시, 불법행위 291건 적발… 연말까지 조치

제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집중 정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과 적치물, 불법 경작시설 등을 정비해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시는 지난 3~6월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42개소, 세천 72개소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불법행위 291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94건(32.3%)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현재 남은 정비 대상은 197건이다.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3개반, 6명으로 전담 정비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정비 대상별 현장 여건과 위반 유형을 고려해 월별 정비 목표를 세우고,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있다.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도두항·위미항·모슬포항 공중화장실 신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두항·모슬포항·위미항 등 국가어항 3곳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국가어항 3곳에 공중화장실 3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이달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어항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 어업인과 이용객들이 인근 수협이나 상가 등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어항에서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시설계와 공공건축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3월 공사에 착수해 어항별로 시설을 조성해왔다.

모든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본인증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소범기자

제26회 최남단 방어축제 19~22일 개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일원서 열려

제26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일원에서 열린다.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제주의 바다와 땅,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방어와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된다.

19일에는 길놀이와 풍어제를 시작으로 지역공연과 개막식,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기간 체험·문화·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방어 맨손잡기와 가두리 방어 낚시, 방어 경매 체험 등으로 방어를 직접 잡고 즐길 수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